“서남해안 시대…민간·군 공항 이전은 무안 발전 계기 될 것”

김영록 전남지사, 무안 군민과의 대화

‘인구 20만명 스마트 공항도시’ 설득
전국 유일 KTX 연결 공항 활성화
“군민 건의사항 경청하고 대화할 것”

“서남권 발전을 위해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의 경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서는 안될 것 같았습니다. 도지사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오후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무안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 참석,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구 20만명의 스마트 공항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날 행사는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 일부 주민의 반발로 예정 시각(오후 2시)보다 1시간 20여 분가량 늦게 진행됐다.

주민들은 행사장 앞에 ‘무안군 발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전남도는 압력 행사를 중단하라’는 등의 군공항 반대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군 공항 이전 철회하라, 돌아가라”며 김 지사의 이동을 막았다.

김 지사도 행사장 앞을 막아선 채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무엇이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며 버티고 선 채 물러서지 않았다.

범대위는 김 지사가 군공항 이전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행사장에 들여보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김 지사는 이를 거부한 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김 지사와 주민들 간 1시간 넘게 마주보고 대치하는 형국이 됐고, 김 지사는 경찰의 3차례 해산 명령 이후 경찰과 도청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청 입구를 막고 행사 참석을 반대한 주민들로 인해 청사를 빠져나오지 못해 행사에 불참했으며,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행사장 안팎에서는 무안군 여러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여, 민원 등을 건의했다는 점을 들어 김 군수가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김 지사는 도민과 대화에서 “행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하겠다”며 행사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도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계를 잇는 서남권 게이트웨이’로 무안공항 중심 인프라와 산업이 같이 발전하는 도시로 무안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는 범대위 소속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김 군수, 무안군의원 등도 불참하면서 핵심 현안인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격렬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지사는 그러나 마지막에 이뤄진 군 공항 관련 질의를 바탕으로 무안공항으로의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에 하려고 했지만 질문이 들어왔으니 먼저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우리 무안공항처럼 소음 피해가 적은 곳이 없다. 소음 피해를 줄일 완충지도 충분하고 바닷가로 연결돼 소음 확산을 막는 역할도 가능하다. 여건이 안되는 함평과 달리, 여건이 정말 좋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광주 군 공항이 오는 데 따른 문제도 있다. 저도 모르겠냐. 하지만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서 왔을 때 10배가 넘을 정도로 이익이 되면 감내해야 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13일 오후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온 김영록 전남지사의 길을 막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그는 오는 2025년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KTX로 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만큼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히 국내선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광주시가 애초 약속을 안 지켰지만 언제까지 그 말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냐고도 했다.

그는 참석하지 못한 김산 무안군수를 향해서도 “무안군과 광주시가 대화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무조건 안 한다고 하면 밖에서는 무안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며 “찬성이냐, 반대냐. 왜 반대냐. 공론장에 나와서 분명하게 말하고 요구하면서 대화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한 박창순 전 광주시 항공대장의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장은 “30년 넘게 소방항공대 헬기를 운영하면서 광주 공항 주변을 항공 촬영했고 13개 세계 공항을 비교 분석해 국제공항 활성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도 받았다”며 “광주와 무안은 바늘과 실로, 서남해안 시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무안공항으로의 민간·군 공항 이전은 무안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KTX가 지나가는 광주송정역은 광주역과 통합된 뒤 땅값이 치솟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뻗어나가고 있는 점을 들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라고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다른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실·국장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설명토록 한 뒤 “어떻게 하는 게 무안 발전을 위한 것인지 무안군수랑 진지하게 대화하겠다”며 행사를 마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순신 친필’ 의병장 임명첩 국가 보물 승격 추진

전남도, 오늘 고흥분청문화박물관서 학술대회

이순신 장군이 고흥 일대에서 의병을 일으킨 신군안(申君安·1544~1598년)을 의병장으로 임명한 친필 서첩을 국가 보물로 승격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14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고흥 신군안(申君安·1544~1598) 의병장 임명첩의 국가 보물 승격을 위한 가치 조명 등 전반적 내용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역문화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의병사 관련 연구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문중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승격의 당위성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현재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174호로 지정된 고흥 신군안 의병장 임명첩은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시기인 1597년 12월 14일 신군안이 보낸 의병 활동 보고서를 치하하고, 의병장으로 임명한 친필 서첩이다.

삼도수군통제사가 재임하던 중 직접 써서 수결(手決)까지 해 발급한 의병장 임명첩으로는 현재까지 유일하다.

연해지역 각 관(官)과 현지 의병에 대한 지휘통솔권이 수군통제사에게 주어졌다는 것, 신군안이 보낸 의병 활동 결과 보고를 치하한 것, 의병장에 임명하니 더욱 분발해 싸우되 특히 군율을 엄격히 하라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진왜란 때 수군의 전력을 높이는데 연해지역 의병 활동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다. 의병사와 해전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가치가 높다. 신군안 의병장은 고향 흥양(고흥)에서 의병을 일으켜 연해지역 7개 읍을 중심으로 많은 전과를 올린 뒤 선조 31년(1598) 진중에서 순절했다.

심재명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의병 선열의 정신을 기리고 의미 깊은 유물의 가치를 높여 선양하는 일은 오늘을 사는 후손의 당연한 책무”라며 “고흥 신군안 의병장 임명첩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승격 지정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글로벌 관광·문화벨트 핵심 사업 탄력

장성 ‘K -사찰 문화’ 체험시설 등 4개 사업 정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장성에 ‘K -사찰 문화’ 체험 시설이 조성되고 해남에 세계적 수상정원이 만들어지는 등 남해안 일대를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글로벌 관광·문화벨트로 구축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최한 ‘2023년 제 3차 수시 중앙투자심사’ 결과, 여수와 장성 등 4개 시·군이 올린 사업을 모두 통과시켰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각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 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로, 300억(시·군 200억) 이상 사업의 예산 편성 전 이뤄지는 마지막 검증 절차다.

이번에 통과된 사업은 ▲뷰티·스파 웰니스관광거점 조성사업(여수·총 사업비 239억원) ▲K 사찰 음식관광 명소화사업(장성·〃 217억)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사업(신안·〃 420억원) ▲땅끝 수상복합공연장 조성(해남·〃 456억)으로, 전남도가 일선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전남·광주, 부산·울산·경남의 매력 있는 관광자원과 관광명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이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오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간 3단계로 나눠 3조원(전남 1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땅끝 수상복합공연장은 해남 10만㎡ 부지에 글로벌 공연관광 시장을 겨냥해 2000석 규모의 수상공연장과 수상정원 등을 갖춰 랜드마크 관광지로 키우는 사업이다.

여수에 조성되는 뷰티·스파 웰니스 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국비 106억원 등 239억원을 들여 1만 9261㎡부지에 해양웰니스 체험시설, 섬 특산물 판매시설 등을 조성해 남해안만의 독특한 해양 웰니스 산업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최근 사찰 음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사업은 장성군 북하면 폐교 부지(1만5874㎡)에 사찰정원, 한식문화체험관, 학교텃밭 등을 꾸며 한국 대표 사찰 음식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민비서 ‘구삐’, 아동 필수 예방접종일 안내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 예방접종일과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알림·고지·상담 서비스 등 14종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비서 구삐는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의 행정정보를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해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달 기준 가입자 수가 1616만 명을 돌파한 대표적인 행정서비스로 꼽힌다. 이번에 14종의 정보가 추가되면서 구삐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알림 67종, 챗봇 상담 45종 등 총 112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연합뉴스

개발부지 매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시흥대로변
매매금액 : 280억
대지면적 : 1,379㎡(417평)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서울과 경기 서남부권을 잇는 시흥대로 광대로변에 위치한 자산
· 2호선 구로디지탈단지역과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더블역세권 위치
· 매도자 명도조건이며, 제소전화해 완료
· 추천용도 : 오피스텔 및 근생 개발, 자동자전시장 및 판매장
대표번호 02-554-9685 010-4484-8110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염 정 오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중앙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용